

반짝 관심보다는 꾸

— 4월 20일 장애인



金錫元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회장

오

는 4월 20일은 열일곱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북돋우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장애인 관련행사가 봇물처럼 터져 잠시나마 장애인에 대한 온정이 줄을 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고용촉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최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립자금 융자, 공공요금 감면, 보장구 개발 보급, 편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는 한편, 『장애인먼저』 운동을 통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내지는 전시효과만을 염두에 둔 행사와 환경시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장애인들을 위촉시키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며, 그 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관심 밖의 일로 밀려납니다. 『장애인먼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장애인만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택시나 버스들, 도시철도 요금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미흡하고,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을 혼자서 건너기에는 무리한 교통신호 체계와 형식적으로 깔려 있는 유도블록,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이용할 수 없거나 아예 바리케이드를 막아 놓은 현장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할

준한 나눔의 실천을

의 날을 맞이하면서 -

수 있습니다.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황새”처럼 잔치에 초대해 놓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웃지 못할 일들이 GNP 1만달러와 OECD 가입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즈음도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서지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배타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약물오·남용, 환경오염 등 그야말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행한 사고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중에 한 명이 이같은 불행을 당하였을 때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온 가족이 노력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결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특히 아픈 손가락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사회의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이 가고 치유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만 소수도 결코 무시당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 이것이 진정 민주사회이며, 선진국 진입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아픈 구석이 있고, 사회의 구성원 중에는 상처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장애인은 있습니다. 다만,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수일 뿐이며, 나머지는 다행하게도 아직 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 계층과 불우이웃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보다는 꾸준한 나눔의 실천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 봅니다.